

# 화천군 정수장 공사 참여 기준 대폭 완화

## 도내 100여 업체 참여 가능

속보=화천군이 신규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는 건설업계의 반발(본보 지난 3일자 9면 보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에 나섰다.

8일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화천군은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 상수도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대폭 완화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당초 최근 10년 이내 국가·지자체가 발주한 상수도 시설에 대한 일부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이 공사에 입찰할 수 있었던 것을 시공능력평가액 460억원 이상 업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참여가 가능한 지역업체는 기존 10여개사

에서 100여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앞서 지역 건설업체들은 화천군이 예정금액 388억2,100만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과도한 실적제한을 기준으로 해 도내 업체들의 참여 기회

를 박탈했다고 주장했었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슷한 시설공사가 발주될 때에도 모범사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도 中企 제품 관로 확대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 개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관로 확대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이 나서기로 했다.

도와 도산업체경제진흥원이 주최 및 주관한 2016년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가 8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막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는 도와 시·군, 도교육청 등 7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할 것을 약속했다.

최문순 지사는 "강원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도에서 발생하는 부가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라며 "올해는 공공구매 금액의 100%를 도 내기업 제품으로 구입한다는 목표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 기업들도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 경기장 연결도로 개설 진입로도 4차선 확장

## 동계올림픽 교통인프라 확충 361억 투입 내년까지 완공

【강릉】강릉시는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장 지원도로 2개 노선을 개설하고 경기장 진입 도로를 확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병목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국도 7호선 강릉원주대 앞~죽헌교차로 구간에 161억원을 투입, 왕복 2차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고, 시 외곽을 잇는 도로망과 연결하기로 했다.

또 200억원을 들여 군정교와 강릉중앙교회 삼거리로 바로 연결하는 1.1km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로 했다.

이러 강릉중앙교회 삼거리에서 안곡주유소 삼거리까지 1.47km 구간도 기존 왕복 2차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한다.

시는 경기장 진입도로 신설과 확장에 따라 올림픽 대회기간 중 선수, 임원 및 관람객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 이후에는 관광객 교통수요 확충에 기여해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2017년 9월까지 빙상경기장 지원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 건설·수도분야 모든사업 상반기 조기발주

일반·특별회계 각각 296·373억 이달 전선지중화 등 80건 발주

【강릉】강릉시 건설수도분부는 재정 조기 집행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건설·수도 분야의 모든 사업에 대해 상반기 조기 발주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 활력 강화와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계획 목표율을 행정자치부 권고액 55%보다 5%포인트 높은 6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수도분부의 조

기 집행 목표액 규모는 일반회계 296억원, 특별회계 373억원 등 669억원에 이른다.

건설·수도 분야의 조기 발주 사업 지원을 위해 미래도시과에 자체 측량 및 설계반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본부 소관 143개 사업, 750억원의 사업에 대해 사업장 관리카드를 개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재해위험지구 정비, 입암동 급호어울림아파트-문암정 간 도로개설, 옥계산업단지·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 44건 300억원의 사업을 발주했으며 이달 중 4개 노

선의 전선지중화 및 홍제동 관문 정비, 솔향수목원 진입도로 개설 등 80여건(250억원)의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발주되는 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룬다.

김남호 시 건설수도본부장은 "상반기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조기 발주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기반·미관을 정비해 연말 테스트이벤트를 기점으로 '세계 속의 강릉'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 화천군 실적제한 전격 완화

## 32.38km 준공 조항 삭제 지역업체 입찰 기회 확대

속보=388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리한 실적제한으로 지역 업체들의 입찰 기회를 박탈했다는 논란을 빚은 화천군(본지 3월 3·4일자 6면)이 전격적으로 입찰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8일 도와 화천군에 따르면 당초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 상수도 시설공사'에 포함시켰던 '최근 10년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수도 시설 D 150mm 이상, 32.38km 준공실적' 입찰자

격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시공능력평가액 460억원 이상 업체'로 입찰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또 지역업체 최소 지분율도 전체 공사의 49%이상을 확보하도록 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도 최소화했다.

이로써 당초 도내 10여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었던 자격이 100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대폭 완화해 지역업체 참여폭이 확대됐다"며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화천군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 부정당제재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해 획기적인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달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제척기간 도입

개정안은 일반 제재 사유의 경우 5년, 뇌물 제공 또는 담합의 경우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척기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나. 법률상 주요 제재 사유 명시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재사유(총 2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부과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가지 제재사유(개정안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즉 개정안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제재 사유에 있어, 법률에 명시되어 있던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문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고, 각 제재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였다. 해당 제재 사유는 계약

이행간 부실·조작·부당·부정한 행위, 담합, 하도급 위반, 사기·부정한 행위로 국가 손해 발생, 공정위 및 중소기업청장 요청, 뇌물 등이다. 한편 개정안 제27조 제1항 제8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통해서 는 소정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여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참고로 위 8호의 경우에는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다. 제재 정보 공개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자격 사항 명시

개정안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처분 정보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

위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금년 9월경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 법률 개정안에 따라 조만간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의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포함) 사유, 절차 및 기준 역시 개정될 것이므로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과 접근도로 등 인프라 건설이 한창입니다.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대회 준비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건설인들이 있어 남다른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강원도 등 여러 유관기관의 배려로 지역외공도도급 등을 통해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에 우리 강원건설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며, 전 세계인의

축제의 장이 될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완벽하고 안전한 경기장 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유물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강원 건설인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 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협회 회원사 모두가 성공개최를 응원합니다.



**조안규**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발맞추어 '도시민에게는 건강을, 농민에게는 소득증대'라는 모토 아래 농축산물 유통 개선 및 명품농산물 발굴,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건전경영 확보를 위한 지원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업인 실익지원을 통한 건강한 농·축협 육성, 사업법인·계통조직간 화합과 상생을 통한 조직문화 구축, 도시민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역사회의 같이하는 가치 실현 등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12년 3월 2일 사업

구조개편으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 금융지주로 조직이 개편된 이후 안정화되어 정착되는 단계입니다. 현장중심의 사업 실천을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입니다. 연합사업 확대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전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확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또 강원도를 찾는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안전한 고품질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강원도민과 상공인 모두는 지난 2011년 남야공 더반에서 올려 퍼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의 감동과 환희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확신합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직 부족하고, 준비과정에서도 제도적, 규모의 경제 문제로 인하여 지역기업의 참여가 미비한 것은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이후 대한민국과 강원

도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우리경제가 더욱 더 꽃 피울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상공회의사는 국내 최고의 경제단체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준비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 올림픽이 기업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끊임 없는 내부 논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김대호**  
강원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

축제의 장이 될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완벽하고 안전한 경기장 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유물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강원 건설인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 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협회 회원사 모두가 성공개최를 응원합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테스트 이벤트 성공개최... 정선 세계 알렸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첫 번째 테스트이벤트인 2016 아우디 국제스키연맹(FIS) 스키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부족한 경기장 공사기간, 이시기변 등으로 대회를 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같은 우려는 강원도와 동계조직위 관계자들의 세밀한 계획과 밤을 새운 노력으로 해소됐다.

대회가 열린 2월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만난 외신과 선수단 등은 대회 운영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선에서 작은 기적이 연출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프랑스 카스퍼 FIS 회장은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대회 개최 여부를 우려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슈퍼대회전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카를로 안카(30·스위스)는 "날씨가 완벽했고 눈 상태와 코스 컨디션도 좋았다"며 "슬로프를 비롯한 경기장 시설, 한국 문화 등이 모두 좋았기 때문에 2년 뒤 올림픽이 기대된다"고 흠뻑했다. 평창조직위의 발 빠른 대응도 돋보였다. 7일 경기 도중에 부상당한 선수들을 헬기 등을 이용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선수들을 곧바로 후송했다. 또 임직원 등 300여 명은 6일 오

후부터 경기장에 많은 눈이 내리자 긴급제설작업을 실시,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2018평창조직위원회, 강원도도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실무조정협의회에서 정선 알파인스키 월드컵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3개 기관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첫 시험 무대였던 것에 비해 선수 중심의 경기 운영을 비롯해 해외 취민(VIP) 의견, 자원봉사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대회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관람객 편의제공과 경기 운영인력에 대한 처우 등은 즉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선알파인경기장에 설치된 곤돌라를 한시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하고, 무료 개방 시기는 추후에 조율하기로 했다.

첫 테스트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는 두 번째 테스트 이벤트인 2016아우디 FIS 스노보드·프리스타일스카스키 월드컵의 성공개최로 이어졌다. 2월 18~28일 이 대회가 열린 평창보광 휘닉스 파크 코스는 '강조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강경모기자 kmrivr@kwnews.co.kr



◀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2016아우디 FIS 스노보드·프리스타일스카스키 월드컵 현장



▶ 강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양호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장, 최윤순 지사, 신동민 대한스키협회장, 구본만 한국도도C 평창조직위원회장과 지난 프랑스 카스퍼 국제스키연맹(FIS) 회장 등이 언론사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